

西洋의 머리形態에 表現된 Post-modernism에 關한 研究⁺

安 賢 景

東南保健大學 美容科 助教授

A Research on Post-Modernism Expressed on Western Hair Styles⁺

An, Hyeon-Kyeong

Assistant Prof., Dept. of Cosmetology, Dongnam Health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expressed on western hair styles in the late 20th century. Therefore this thesis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modernism & the hair styles of that mage and post-modernism & the hair styles of that mage. That will re-illuminate the same beauty worth of same age as to accurate the concept of post-modernism & the hair styles of that mage. And the last, criticizing the post-modernism design and that hair design, helping to find new trend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he literature research & analysis of visual materials focus on upper bust image that can know the relationship of modernism & the hair styles of that mage, and post-modernism & the hair styles of that mage.

First, the literature research is composed of analysis of theses, magazines on art, clothing and cosmetology having the contents of 20th century western culture, art and hair styles. Second, the analysis of visual materials is composed of analysis of video films, slide films and photographs of books, magazines, and internet home-pages.

Modern western hair styles, appeared after 1910's, is represented as a short cut & permanent wave. That express experimentalism, functionalism, and purism, that is same as the other art's trend of same age.

Post-modern western hair styles, appeared after 1960's, also show the same trend with same age's. This summarized & characterized 8 categories; historical method, pluralism, negotiation, escape from the formality, recovery of humanity, ornament, connection with race, metaphor & symbolism.

But post-modernism concentrating pluralism makes easy making low quality art and absence of criticism, so this thesis criticised it 5 categories; absence of ideas, absence of the social sense of responsibility, lost of one's characteristics, decline of skills, decline of worth of usages.

Key words: hair style(헤어스타일), modernism(모더니즘),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Vidal Sasson(비달 사순)

⁺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I. 서론

서양의 근·현대를 관류한 시대정신인 모더니즘(Modernism)은 이성과 감성을 이원적 대립으로 규정하고 성에 우위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20세기 초반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이후 일어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인류의 문제들은 인간에게 위기 의식을 증폭시켰고, 결과적으로 '주체의 해체(Deconstruction of Subject)' 라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적 현상을 낳게 하였다.¹⁾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사상적, 문화적 현상을 지적하려는 용어일 뿐 종전의 'ism'의 개념처럼 어떤 특정한 유평나 체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 헤어스타일은 그 수용의 범위가 기존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개성화,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 인류에게 주어진 모순과 위기 의식의 증폭으로 모더니티에 대한 계승과 함께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한 포스트모더니즘²⁾이 현대 서양의 머리형태에 표현된 특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우선 모더니즘과 헤어스타일과의 관계를 다루고 이후 포스트모더니즘과 헤어스타일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양의 머리형태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과 그 것이 표현된 헤어스타일을 비평함으로써 동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의 미적 가치³⁾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모더니즘과 머리형태, 포스트모더니즘과 머리 형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20세기 서양의 문화와 예술, 머리 형태상에 관한 예술학, 의류학, 미용학 관계 문헌과 논문, 잡지 등의 문헌연구와 머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비디오, 슬라이드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시각자료를 홍상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징은 예술

학 관계 문헌과 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요약하였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헤어스타일 경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헌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그 시대의 머리형태의 경향을 분석하여 논자가 각각 특징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각 항목에는 특징적 개념과 형태, 발현양식 등의 내용과 비주얼 자료를 첨부하였다. 내용은 예술학, 복식학, 미용학 관계문헌의 분석을 하였고, 비주얼 자료는 패션 잡지와 문헌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 비평은 예술학 관계문헌을 조사 분석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 헤어디자인 비평은 논자가 전 장에서 구분한 8개의 포스트모더니즘 헤어스타일 특징 항목 중 비평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개의 항목을 선택 비평하였다.

III.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1. 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징

1) 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

르네상스 이후 자연은 재발견되어 그 진실함이나 아름다움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 잡았었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게 된 자연은 언제나 자유에 대해 눈을 뜬 근대인들에게 충암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저절로 이러한 권위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고, 자연을 탈출하려고 하였다. 특히 자연과학의 발달과 여기에 따른 기능문명의 진보는 자연이 가진 필연적인 법칙인 권위에 대해 반발을 일으키게 하여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요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20세기에 들어서는 자연을 이탈하여 예술의 자주성을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현대미술은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추상 형태를 창조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되는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등 변모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전환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⁴⁾

현대미술, 특히 추상미술은 형식주의 평론가들에 의

해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미술로 생각했다. 회화의 경우, 순수함이란 회화의 본질인 색채와 평면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미술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인상주의에서 후기인상주의로, 그리고 입체주의, 구성주의, 표현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팝 아트, 미니멀리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으로의 진보과정을 가정하고, 파리나 뉴욕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한 미술가들의 업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⁵⁾

2) 모더니즘의 특성

모더니즘은 일원론적 이성중심주의로 통일성과 획일성, 형식성의 서구중심 문화논리를 기초로 형성된 체계였다. 그러므로 기계적 미학이 중심이 되어 직설적 논리와 기계적, 기능적, 공학적 구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板倉壽郎은 20세기에 나타나는 복잡한 표현현상을 2가지 근본적 흐름으로 설명했다. 그 하나는 미술사가 한스 제데르마이어가 '중세의 상실'과 "근대 예술의 혁명"에서 '순수성의 지향'이라고 지칭한 자율성예의 지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파 운동을 포함하여 다다이즘으로부터 초현실주의로 이동하는 저류에 나타나는 '우연성'의 지향이다.⁶⁾

이 중 모더니즘은 20세기 초반의 순수성의 지향을 그 근본 특성으로 하면서 표현되었는데, 순수성의 지향은 바우하우스의 조형교육의 이념과 회화의 추상적인 경향, 조각의 볼륨의 축소, 건축의 무장식의 기능적인 형의 추구 등으로 나타났다.

2. 모더니즘과 헤어스타일

1) 모더니즘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

각각의 문화나 시대를 통해서 인간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실현하였다.⁷⁾ 그러므로 동시대 같은 문화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문화가치를 공유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이 문화가치였던 시대에는 헤어스타일 역시 같은 문화조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헤어스타

일의 경향을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모더니즘 헤어스타일 경향

(1) 실험성

모더니즘의 새로운 예술의 창조라는 '아방가르드'적 실험정신은 머리형태에도 새로운 주제를 표현하게 했는데, 1910년대에 나타난 보브(bob)(그림 1)와 1920년대의 쇼트 컷(short cut)은 여성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머리형태의 개념을 벗어나도록 한 획기적인 20세기의 특징적인 여성의 머리형태였다.⁸⁾ 보브는 1914년 탱고 댄서로 유명했던 Irene Castle이 보브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춤을 추게 되면서부터 유행하게되었는데⁹⁾, 맨발의 발레리나인 Isadora Duncan도 이 스타일의 유행에 한 몫을 하기도 했다. 보브란 '자른다'의 별칭이었는데,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유행했던 헤어스타일로, 그 당시 단순함과 기능성을 추구하던 사회상과 댄스 붐, 그리고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머리형태였다.¹⁰⁾

또한 1936년 영국의 Speakman 교수에 의해 발명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cold permanent wave)¹¹⁾(그림 2)와 1920년대부터 가속화 되기 시작한 멋내기 염색¹²⁾은 미술과 테크놀로지 운동의 미술가들이 사용한 과학적 사고 모델의 형식과 같이 처음으로 과학과 미용을 결합함으로써 머리형태 디자인에 획기적인 길을 열었다.

(2) 기능성

모더니즘은 일원론적 이성중심주의로 기계적 미학이 중심이 되어 직설적 논리와 기계적, 기능적, 공학적 구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모더니즘 디자인은 기능 위주로 장식성이 배제되었다. 그런 머리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보브이다(그림 3) 이 머리형태가 출현한 세계 제 1차 대전 당시 여성들은 가정에서 나와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추장스러운 긴 머리는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브와 같은 짧고, 기능적인 머리형태는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급속도로 그 세를 확장시켰을 것이다. 또한 퍼머넌트 웨이브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간편하게 머리를 손질한다는 기능주의적 측면의 헤어스타일 손질법이었으므로 모더니즘적인 헤어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아이렌 케슬과 보브(1914).
「New York Fashion」



〈그림 2〉 퍼머넨트 웨이브
스타일(1931).
그레타 가르보
「Costume Design
in the Movies」



〈그림 3〉 보브 스타일
(1920s). 「History
of Haute Couture」



〈그림 4〉 쇼트 컷트 (1920s).
「New York Fashion」

(3) 순수성

현대미술이 추구했던 ‘순수성의 지향’은 독일공작 연맹의 ‘완전하면서 순수한 용’을 디자인의 목표로 한 것, 회화의 색채와 평면성을 추구한 추상적인 경향, 조각의 양감의 배제, 건축의 무장식의 기능적인 형의 추구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조류의 영향을 받아 머리형태도 과잉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것은 20세기 초반의 과학의 발달과 기능성의 추구와 무관하지 않아 가정 밖으로 나가 직장을 가져야 했던 여성들이 기능적인 머리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까다로운 머리장식 보다는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의 머리형이 이로웠을 것이고, 이러한 사회가치는 순수한 형태의 헤어 스타일로 타나났을 것이다. 머리형태 상의 순수성이 나타난 스타일을 보면, 보브와 쇼트 컷트(그림 4), 포니 테일(poney tail), 부판트(boufant) 등이 그것으로 스마트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20세기 전반의 헤어디자인계를 평정하였다.

3.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징

1)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

20세기 후반의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상황을 잘 나

타내는 지적 운동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Modernity)’에 대한 계승과 함께 전면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근·현대를 관류한 시대정신인 모더니즘은 이성과 감성을 이원적 대립으로 규정하고 이성에 우위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성중심주의이다. 이런 이성 중심의 모더니즘의 이념들이 만들어낸 부작용과 모순에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총체적 비판에서 출현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초·중반기 세계인들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모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험적 태도로서, 60년대 당시 주요 사회운동의 혁명논리와 접맥되면서, 정치·사회적 해방의 의미와 기존 문화에 대한 반문화적 공격의 의미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이 그들의 입장을 하나의 일련화된 철학이나 이론 체계로 세우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주장하며, 일반화, 체계화, 이론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¹³⁾ 그러므로 어원의 동기부터가 다양하고 때로는 상이한 다원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일한 공통점은 제도권미술이 표방했던 순수조형주의 형식론에 입각한 모더니즘 비판에 대응한 시기 적절한 대안이란 것으로 인식되었다.¹⁴⁾



<그림 5> 워홀(1963). 모나리자



<그림 6> 베네통 광고(1989)

2)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성

포스트모던이란 말은 최초로 문학과 관련하여 1971년 처음 사용되었고, 그것은 곧 사회과학, 심리학, 철학에서도 쓰여졌다. 시각예술에서는 찰스 쟁크스가 1970년대의 건축상황을 특징짓는 말로 처음 기용되었던 것이 미술 비평가에 의해 사용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일종의 회화적 나르시시즘으로 낙후되면서 이것을 문제삼아 그리는 작업에 무엇인가 할 것을 부여했다는 데서 존재의 근거를 찾았다.¹⁵⁾ 즉 모더니즘의 대명사라 볼 수 있는 아방가르디즘의 쟁점의 표적이 되었고, 문제시되었던 모더니즘을 대체하기 위해 문화적 지적 작업이 진행된 결과 파생된 개념들이 수정주의,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어휘들로 표명되었다.¹⁶⁾

이것은 모순의 논리이지만, 모순 안에서 끝없는 유희를 시도하는 역설의 논리이며, 그 중심적 동기는 모더니즘을 통해 수립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엄격한 구분과 예술의 각 장르간의 폐쇄성에 대한 반발이다. 또한 예술에서의 유연성, 서로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무작위적으로 조합된 콜라주로 부조화의 조화, 혼성모방의 형태, 이중 코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주목 등으로 나타난다.

디자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던 디자인의 기능주의적인 경향에 반대하는 20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반기능주의적인 문화적 양상으로서 특히 건축을 비롯하여 패션, 디자인의 전영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일련된 양식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장르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예술과 디자인은 접근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술이 자기 만족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디자인의 영역은 그 사회적 책임이 항상 동반되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과학적인 사고와 접근방법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을 3개의 커다란 범주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⁷⁾

(1)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 허물기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신과 물질, 이성과感性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거부하며, 예술과 일상생활, 순수예술과 기술 또는 응용예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이분법적인 경계허물기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앤디 워홀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판화작품으로 만들었는데(그림 5), 이것은 모나리자가 가지는 독특함과 예술적인 아우라를 파괴함으로써 예술과 대중문화를 혼합할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켰다.

(2) 장식성의 회복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은 이성적이고 과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디자인하는 대신,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의 아이디어와 형식을 결합하면서 디자인의 스타일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며, 서로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양식들을 함께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유머의 표현으로 형태는 더 이상 딱딱하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응용된 장식과 함께 색채의 표현이 훨씬 더 다채로워졌다.

(3) 반이성

모던 디자인은 기능을 배제한 형태를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구조하에서는 무의미한 작업들이 의미를 갖는다. 의미가 수용되는 인식 공간의 해체로 이러한 현상은 베네통사의 80년대 광고(그림 6)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물건을 판매하려는 광고 본래의 메시지보다는 분위기, 감정, 이미지, 정서 등을 전달하여 확장된 인식공간을 통해 베네통사와 범세계성이 비로서 관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문화적 상품이 되는 것이다.

4. 포스트모더니즘과 헤어스타일

1) 포스트모더니즘과 헤어스타일의 상관관계

각각의 문화나 시대를 통해서 인간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동시대 같은 문화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문화가치를 공유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가치였던 시대에는 헤어스타일 역시 같은 문화조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헤어스타일의 경향을 8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포스트모더니즘 헤어스타일 경향

(1) 역사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추상적 경향의 모더니즘에 결여되어있던 역사적 요소를 인용하고 재변형시킨 형태로 나타나는데, 헤어스타일에서는 '복고풍'으로 나타났다. 로마의 휴일에서의 이탈리아인 보이 스타일, 티파니의 아침에서의 업스타일, 60년대의 엘리스 밴드, 비달 사순(Vidal Sassoon)의 클래식 보브(Classical Bob), 핑거 웨이브(finger wave)(그림 7, 8), 튀기의 짧은 머리, 소두마끼, 이집트의 뿔은 머리 등이 1990년대에 다시 유행하였다.



<그림 7> 웨이브 머리(1907).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그림 8> 복고풍의 핑거 웨이브(1990s).
「미용 미학과 미용 문화사」



<그림 9> 인디언 스타일의 히피 머리(1960s).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그림 10>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컬쳐 클럽의 보이 조지(1980s).

(2) 다원주의

개방적인 태도에서 출발하여 모더니즘의 가치체계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분류하였던 것들에게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 3세계, 민족주의, 지협적 문화 등을 차등이 아닌 차이로 다양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의 저항문화를 반영한 히피스타일(hippie style)(그림 9)과 펑크 스타일(punk style), 제 3세계의 문화를 반영한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 성의 동일 가치를 반영한 유니섹스 스타일(unisex style), 성의 크로스 오버를 보여준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그림 10) 등이 그것이다.

(3) 절충주의

이분법적 논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남성적·여성적, 동양적·서양적 등의 양분된 이미지는 양성의 경향이라든지, 동·서양문화의 접목이라는 이국적 경향 등의 절충된 양식으로 나타난다.¹⁶⁾ 이것은 성의 절충(그림, 민족의 절충, 고급과 저급문화의 절충 등으로 나타난다. 성의 절충(그림 11)은 보브, 쇼트 컷트 같은 여성의 매니쉬 스타일이라던가 긴 머리, 포니 테일(poney tail) 같은 남성의 페미닌 스타일이 그것이고, 민족의 절충(그림 12)은 레게 스타일, 일본의 환곡, 중국의 수계, 한국의 엷은머리 형태 등이 전세계의 헤어스타일 유행에 반영된 것이 그것이며, 고급과 저급문화의 절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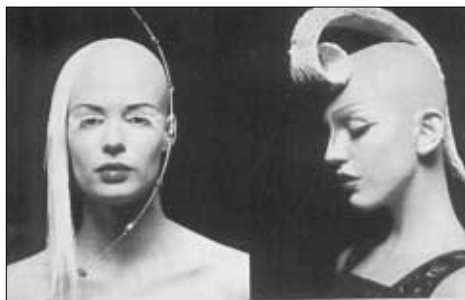
<그림 11> 성의 절충. 베네통 광고(Apr. 1988)



<그림 12> 민족의 절충. 오리엔탈 룩 (1990s). 「뉴티디자인과 색채학」



<그림 13> 히트러진 우연적 머리형태(1970s). 「In Fashion」



<그림 14> 여성의 스킨 헤드. 「Estetica. Oct. 2000」



<그림 15> 모발관리. 「Voque, Nov, 1993」



<그림 16> 두상에 달리 붙는 머리 형태 「Voque, 1999」

은 스트리트 패션의 하이 패션화가 그것이다.

(4) 탈형식주의

헤어스타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공식을 없애고 형식을 벗어난다.¹⁹⁾ 이것은 모발의 무의미화, 모발흐름의 변화, 흐트러진 우연적 모발 형태미(그림 13) 등으로 나타난다. 모발의 무의미화는 여성의 스킨 헤드(skin head)(그림 14) 등으로 나타났고, 모발흐름의 변화는 헤어스프레이, 무스 등의 발달로, 모발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혹은 모아짐이라는 형식을 없애고 머리카락이 두상 밖을 향하는 스파이키 스타일(spiky style) 등이 출현되도록 했으며, 흐트러진 우연적 모발형태미는 바람에 날리는 흐트러진 머리, 갓 자고 일어난 듯한 부시시한 헤어스타일이 오프 쿠튀르 등의 하이패션에도 나타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5) 인간성 회복

개성을 무시한 유행의 맹종에서 벗어나 나의 건강과 자아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다. 이것은 모발건강의 개념을 출현하게 해 모발클리닉(그림 15)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나 개념의 반영으로 유행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나만의 스타일을 창조하여 강한 칼라링이라던가, 나를 들어내기 위한 두상에 달라붙는 헤어스타일(그림 16) 등이 유행하게 되었다.

(6) 장식성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지역 등과 다른 타문화를

차용하다던가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장식기법이 나타난다.²⁰⁾ 이것은 오브제(objet)의 차용(그림 17)이라던가, 칼라 사용의 다양화(그림 18)라던가, 다양한 피스(piece)의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오브제의 차용은 과거의 장식품, 타 문화지역의 장식품 등이 머리 장식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 칼라 사용의 다양화는 형광색, 푸른색, 백색, 보라색 등의 멀티 칼라로 헤어칼라링을 하게 된 것이고, 다양한 피스의 사용은 부분가발, 스팅글 등으로 모발 장식을 하게 된 것이 그 예이다.

(7) 맥락성

자신의 고유 문화를 애써 잊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살려 고유문화의 자긍심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헤어스타일을 창출한다. 1950년대 말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검은 것은 아름답다' 라는 그들의 주장과 함께 흑인의 자존심의 상징으로 나타난 아프로 헤어(afro hair)²¹⁾(그림 19), 콘로우(corn row)²²⁾, 아프로 브레이드(Afro-braid)(그림 20) 등은 고유문화의 자부심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8) 은유와 상징

헤어스타일을 자신이 나타내고자하는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본다.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자신들의 사랑과 자유, 평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던 흐트러진 긴 머리의 히피 스타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저항을 무서운 외모로 표현했던 펑크(그림 21, 22), 민



<그림 17> 오브제의 사용. 『Voque, Apr. 1997』



<그림 18> 화려한 칼라링. 『Voque, 1997』



<그림 19> 아프로 스타일 (1960s). 『What We Wore』



<그림 20> 아프로 브레이드(1988). 『Vanity Fair』



<그림 21> 펑크, 모혹(mohawk)
「Newsweek, 1984」



<그림 22> 펑크. 스파이키 헤어
(spiky hair)
「Collezioni, 1998」



<그림 23> 비달사순(1963).
클래시칼 보브.
「비달 사순 50년사」



<그림 24> 비달사순 베를린.
(June, 2001).
www.vidalsassoon.co.uk

족적 자부심을 그들의 타고난 머리로 나타내고자 했던 아프로 헤어 등이 자신의 의지의 투영을 헤어스타일에 나타낸 예이다.²³⁾

2) 포스트모더니즘 하의 헤어디자이너

20세기 대표적 헤어디자이너인 비달 사순(Vidal Sassoon)은 1960년대부터 과학적 커트 접근법인 지오그래피컬 커트(geographical cut)를 개발하여 자신의 커트형을 다른 헤어 디자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브(bob)라 칭했다. 그는 미니 스킨트를 개발한 마리 콰트(Mary Quant)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리틀 걸 룩(Little Girl Look)을 창안하는데도 일조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더욱 유명해졌다.

그의 유명한 작품인 클래식 보브(classical bob)(그림 23)와 5 포인트 커트(5 point cut)는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고전적인 작품이다.²⁴⁾ 이 작품의 특징은 두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한 정확하고 선명한 커트 선에 있다. 그러므로 비달사순의 고전적 작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모더니즘적 작가라고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볼 때²⁵⁾ 그의 아카데미에서 내 놓고 있는 작품은 어시메트릭 령스(asymmetrical length), 디스커넥션(disconnection)(그림 24), 컨실드 v.s. 리빌(concealed v.s. revealed), 강한 칼라링 등 고전적인 헤어디자인 분야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기법을 추구하였으며, 강한 칼라링 등의 과잉 장식

도 나타나 그의 모더니즘적 작품경향에 역행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더니즘적 정확하고 선명한 선으로 20세기 헤어 디자인 부분의 제약이 되었던 비달사순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시대의 문화적 조류를 타면서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으로 시대를 발 맞추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과 헤어스타일 비평

1.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 비평

모더니즘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것이었으나, 유복한 소수의 것이었고, 그들만이 미적가치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으로 들어서면서, 미술은 귀족적 취향의 소수 엘리트의 성격보다는 민중적, 대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소외된 대중을 포용하여 감성집단의 확대라는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미적 수준은 자연히 낮아지게 되었다.

이런 해석은 1979년에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모던과 포스트모던”이란 강연에서 ‘포스트모던 활동은 모

더니즘의 높은 수준으로부터 단지 퇴각하려는 움직임이며 노력이 덜 요구되는 미술을 성토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혹평²⁶⁾한 것에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다원주의 상태로 존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Hal Foster가 '다원주의 유감'이란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논쟁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상태에서는 미술과 비평이 산산이 흩어져서 무기력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²⁷⁾

예술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을 만들자는 개념의 시작은 훌륭했다고 판단한다. 그 와중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경향은 잊혀져왔던 소수집단의 미를 들어 내는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작품들 속에서 예술의 가치에 일종의 균등성을 부여하고, 가치와 윤리적 해석을 유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즉 모든 양식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상태는 예술과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심각한 곡해가 내포되어있고, 거기에는 비평의 실패도 숨어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시되는 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주의 또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현대인들에게 과거를 회상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변증법이 아니라, 고갈된 아이디어로 인한 예술의 정체화 된다면 문제가 있다.

즉 차등과 차이의 구분에서 차이로의 개념으로 다원화되었지만, 이것은 비평의 무기력함을 가져와서 마치 비평을 하자면 권위주의자²⁸⁾, 엘리트주의자로 보게 되는 것도 새로운 소외가 될 것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 헤어디자인 비평

본 문 의 논제인 헤어 디자인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 문화상황과 함께 동 문화 가치를 공유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머리형태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도 전통적이면서 지적인 기준들이 무너져 버린 소비 사회 문화 속에서 반성 작용과 정화 작용을 간과한 채, 새로운 낙관주의, 대중주의, 감각주의, 무책임주의 문화를 위해 하나의 체계로 인식된 경향이 강하다.

이것을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주의

역사주의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복고풍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고갈되었을 때마다 나타나는 '과거로의 회귀'란 변명이 될 수 있다. 빠른 사회의 발전 속에서 그와 함께 변해 가야 하는 헤어 디자인 영역에서는 그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복고풍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다시 재현하므로써 새로운 창조라는 발전의 법칙에 역행할 수 있다.

2) 다원주의

과도한 다양성의 인정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시되는 디자인의 영역에서 그 책임을 도외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니섹스라던가 앤드로지너스 헤어 디자인은 AIDS가 사회문제시 되고있는 오늘날, 다양한 것에 공통의 가치를 과도하게 인정함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3) 절충주의

지나친 절충주의로 자신의 고유 정체감을 잃고 그 중간에서 헤메이게 된다면 진정한 뿌리가 없는 공중에 뜬 디자인이 될 것이다. 동서양의 구분이 없는 헤어디자인은 자칫하면 문화의 차이에 대한 가치를 잃게 할 수 있다.

4) 탈형식주의

탈 형식주의 경향으로 고도의 기술을 간과한 채 쉬운 아이디어 위주의 디자인으로만 승부를 걸고 있지는 않은 지도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후발 대형 프렌차이즈 미용실 등에서 내놓고 있는 매 해의 트렌드가 과거의 미용사중앙회 소속 기술강사의 하이테크 작품과 작품의 기술적 수준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봐도 이런 기술의 소외란 문제를 볼 수 있다.

5) 장식성

일부 젊은이들의 아프로 브레이드(Afro-braid) 같은 머리 전체를 땀은 머리형태라던가, 강렬한 형광색의

모발 염색 같은 것은, 그 머리 형태를 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보아 작품적 가치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발을 붙여야만 하는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사용성이 현실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20세기 후반의 경향으로서 들어설 때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태생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21세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분별했던 다원주의적 경향의 포스트모더니즘을 한번 반성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그것이 또 다른 창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모더니즘은 일원론적 이성중심주의로 통일성과 획일성, 형식성의 서구중심 문화논리를 기초로 형성된 체계였다. 그러므로 모더니즘 디자인은 기능 위주로 장식성이 배제되었다. 1910년대 이후 나타난 서양의 머리 형태의 모더니즘은 커트와 퍼머넌트 웨이브가

그 대표적인 예로 다른 조형의지와 동일하게 실험성, 기능성, 순수성의 지향을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계승과 함께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부작용과 모순에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총체적 비판에서 출현하였다. 1960년대 이후 나타난 서양의 머리 형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동시대의 문화 상황과 동일한 조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주의, 다원주의, 절충주의, 탈형식주의, 인간성 회복, 장식성, 맥락성, 은유와 상징의 여덟 가지 특성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예술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다원주의는 예술의 질적 저하와 비판의 부재 현상을 낳았고,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디자인의 영역, 특히 헤어 디자인 영역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다분히 비판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역사주의, 다원주의, 절충주의, 탈형식주의, 장식성의 5가지 범주로 비평하였다.

2. 제 언

본 논문은 모더니즘과 그것이 발현된 머리형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그것이 발현된 머리형태에 관

<표 1> 서양의 머리형태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과 그에 대한 비평

| 특 성 | 내 용 | 발 현 양 식 | 비 평 |
|-----------|---|---|-------------|
| 1. 역사주의 | 과거의 것을 현대에 도입 | bouffant, finger wave | 아이디어의 고갈 |
| 2. 다원주의 | 모더니즘의 의식체계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분류하였던 것들에게 탐구의 기회를 제공 | hippie, punk, ethnic, androgynous style |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
| 3. 절충주의 | 이분법적 논리를 허용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등이 | unisex, oriental style | 정체감의 상실 |
| 4. 탈형식 주의 | 절충된 양식으로 나타남 헤어스타일 제작의 공식을 없앴 | skin head, spiky hair, 흐트러진 우연적 머리 형태 | 기술의 저하 |
| 5. 인간성 회복 | 형색을 탈피하여 그 머리 형태를 하는 인간을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함 | 모발건강의 개념, 나 개념의 반영 | |
| 6. 장식성 | 다양한 장식의 발달 | objet의 차용, multi-colour · piece의 사용 | 사용의 어려움 |
| 7. 맥락성 | 민족적 자긍심을 살리려 함 | afro, oriental hair | |
| 8. 은유와 상징 | 헤어스타일이 자신의 주장이나 사회상을 상징 함 | punk, hippie | |

한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서양의 머리형태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을 8개의 특징으로 구분하였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머리형태에 표현된 양식을 5가지 범주에서 비평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현상의 파악과 이에 대한 비평일 뿐 새로운 양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후기의 연구자들은 앞으로 많은 작품을 발현시켜주고, 새로운 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선도해 나가주길 바란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 디자인의 다양성을 대변하고는 있지만, 차기의 연구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특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 준다면 학문의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김옥동(1992).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 p. 15.
- 2) 경노훈 · 윤민희(1999). 디자인 문화와 생활. 서울: 예경, p. 161.
- 3) 조규화(1998).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90.
- 4) 조규화(1995). 복식미학. 서울: 수문사, p. 270.
- 5) 로버트 엡킨스(1994). 현대미술의 개념놀이(박진선역), 서울: 시공사.(원본 1990년 발행), pp. 96-98.
- 6) 板倉壽郎(1986. 4. 23). 현대적 표현의 저류, 「주간섬유」.
- 7) 조규화, 앞글, p. 24.
- 8) Tortora, P. & K. Eubank.(1989).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pp. 289-299.
- 9) Batterberry, M. & A. Batterberry(1977).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New York: Greenwich House, p. 267.
- 10) 안현경(1995). 20세기 서구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
- 11) 박형심 외(2000). Art of Wave. 서울: 청구문화사. p. 46.
- 12) Hatton, Lesley(2000), Colouring(이의수역), 서울: 현문사. p. 221.
- 13) 경노훈 · 윤민희. 앞글, pp. 161-163.
- 14) 김옥동. 앞글, pp. 213-214.
- 15) Downes, Rackstraw(1976). Postmodernist Painting, Traks, p. 72.
- 16) 김옥동. 앞글, pp. 215-216.
- 17) 경노훈 · 윤민희. 앞글, pp. 163-174.
- 18) 전선정 · 양선미(1997).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pp. 5-16.
- 19) 전선정 외 3인(2001). 미용미학과 미용 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p. 17-21.
- 20) 경노훈 · 윤민희. 앞글, p. 170.
- 21) 장태한(1993).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p. 71-243.
- 22) 안현경. 앞글, pp. 64-66.
- 23) 안현경. 앞글, pp. 64-73.
- 24) Beauty & Health 연구회(2001). 비달사순 50년사. 서울: 현문사, p. 24, 28.
- 25) www.vidalsassoon.co.uk
- 26) 김옥동. 앞글, p. 220.
- 27) 서성록편저(1989). 포스트모던 미술과 비평. 서울: 미술공론사, p. 263.
- 28) 서성록편저. 앞글, p. 286.